

森鷗外の 「山椒大夫」 研究*

權泰敏**

(e-mail : taemin@hanseo.kr)

目次

1. 들어가기
 2. 「산쇼대부」의 구성
 3. 오가이의 사상과 불교
 4. 「산쇼대부」와 불교
 5. 맺음말
-

1. 들어가기

森鷗外¹⁾는 그의 나이 51세(1912)에 메이지(明治)에서 다이쇼(大正)라는 시대의 전환점에서 지금까지의 소설 창작방식에서 벗어나 역사를 소재로 한 근대 역사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확립했다.²⁾

노기(乃木希典)대장의 순사(殉死)를 계기로 「오키즈야고에몬의 유서(興津弥五衛門の遺書)」(『中央公論』1912:大正1)를 발표한 이후, 「아베 일족(安部一族)」(『中央公論』1913:大正2), 「사하시진고로(佐橋甚五郎)」(『意志』1913:大正2), 「고지인가하라의 복수(護持院原の敵討)」(『ホトギス』1913:大正2), 「오시오헤하치로(大塩平八郎)」(『中央公論』1914:大正3)에 이어 「사카이 사건(堺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한서대학교 교비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서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일본근대문학

1) 森鷗外(1862-1922)는 이후 오가이로 표기

2) 拙稿(2006)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歴史小説 考察」, 『日本文化学報』第 31輯, 韓国日本文化学会, p327

事件)」을 『新小説』(1914:大正3)에 발표했다. 모두 봉건시대의 일본의 정신을 주제로 한 역사소설인데, 이 작품들은 오가이 특유의 기법으로 작품 구성은 물론 주류를 벗어난 삽화적 기사까지 그대로 묘사할 정도로 역사적 자료에 충실하다.

이와같은 역사적 자료에 충실한 그의 작품 기법은 1914(大正3)년 4월 잡지 『太陽』에 발표된 「야스이 부인(安井夫人)」을 거쳐 「산쇼대부(山椒大夫)」에 이르러서 역사적 자료에 충실했던 기존의 작품과는 다른, 작가의 상상력을 좀 더 활용한 작품 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산쇼대부(山椒大夫)전설을 소재로 구성된 「산쇼대부」는 1915(大正4)년 1월 『中央公論』에 발표된 작품이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지장보살의 영험과 등장인물인 안쥬의 희생 등이 다루어져 있어 불교와의 관계를 연상케하는 작품이다.

1915(大正4)년은 오가이가 육군 의료계의 최고 지위인 군의총감이 되고(1907:明治40, 46세)부터 8년째인 54세 무렵으로, 메이지 시대라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다이쇼라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근대국가 건설에 청춘을 바치고 이제는 오랜 관직 생활을 뒤돌아 보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는 작품 「산쇼대부」의 구성과 오가이가 사료로서 소장하고 있던 『徳川文芸類聚』에 수록된 「산쇼대부(さんせう太夫)」³⁾의 관계, 오가이의 사상과 불교, 그리고 「산쇼대부」의 내용을 통해 오가이의 집필자세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산쇼대부」의 구성

「산쇼대부」에서 오가이는 산쇼대부 전설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작가의 상상력을 합리적으로 재구성 하였다. 다음은 「산쇼대부」의 한 장면이다.

그해 가을 마사미치는 단고의 수령으로 임명되었다. 이 관직은 직접 부임하지 않고 대리인을 두어 다스려도 되었다. 그러나 마사미치는 취임하여 첫번째 조치로서 단고 지방에서 인신매매를 금했다. 그래서 산쇼대부도 노비를 모두 해방하고 대신에 금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대부의 집에서는 한때 큰 손실을

3) 『徳川文芸類聚』第8卷 『浄瑠璃』에 収録되어 있는 「さんせう太夫」가 東京大学 総合図書館에 臨外文庫로 소장되어 있다.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농업이나 공업의 생산이 증가해
대부 일족은 더욱 부자가 되어 번영했다.⁴⁾

주목되는 점은 마사미치로 개명한 즈시오가 단고의 수령이 되어 산쇼대부에
게 취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산쇼대부 전설에서는 즈시오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산쇼대부 일가를 용서
없이 징계해서 억눌린 민중의 원한을 풀어주는 구성인데 반해, 작품 「산쇼대
부」는 인신매매라는 반 인륜적인 세태를 현 세태에 맞게 법으로 금지하고, 노
비들을 해방하는 대신에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니 산쇼대부는 오
히려 번영을 누리겠다는 이야기이다.

민중의 원한을 풀어주는 감정적인 대처 방법에서 합리적인 대처 방법의
구성은 작가 오가이의 합리적인 사고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작품 「산쇼대부」는 민간에 산재되어 전해 내려오는 산쇼대부 전설을 제재
로 하고 있다. 「산쇼대부」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많은 산쇼대부 이야기 중에
서, 현재 도쿄대학 종합 도서관에 오가이 문고로 소장되어 있는 『徳川文芸類
聚』에 수록된 조루리(淨瑠璃)를 오가이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코보리
(小堀桂一郎)씨는 말하고 있다⁵⁾. 그러나 오시마(大島保彦)씨 등의 「森鷗外
『山椒大夫』論」⁶⁾을 참고하면 오가이는 『徳川文芸類聚』에 수록된 조루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본을 참고로 했다고 생각된다.

오가이는 「산쇼대부」의 집필 동기에 관해서 그의 「역사소설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 그대로와 역사에서 벗어남(歴史其僕と歴史離れ)」에
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역사의 「자연스러움」을 변경하기가 싫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역사에 속박되었다. 나는 이러한 속박에서 괴로워 했다. 그리고 벗어나려고
했다. (중략)

아직 남동생인 도쿠지로가 살아있을 때이다. 나는 여러 종류의 짧은 이야기
꺼리를 모아본 적이 있다. 그 중에 좁쌀을 말리면서 새를 쫓는 여자 이야기가
있었다. (중략) 산쇼대부의 1절이다. 나는 이전에 모아서 버려져 있던 1막 짜
리를 지금 단편소설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중략) 나는 전설 그 자체를 너무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 꿈과 같은 이야기를 꿈과 같이 마음속에 그려 보았다.⁷⁾

4) 森鷗外(1915) 「山椒大夫」, 『中央公論』, 이후 『森鷗外全集3』, 筑摩書房, 1983, p253.

5) 小堀桂一郎(1982) 『森鷗外-文業解題(創作篇)』, 岩波書店

6) 大島保彦·岸田俊子·高田ゆみ子(1983) 「森鷗外 『山椒大夫』論」, 『比較文学研究』44号, 東京
大学

오가이가 산쇼대부 등의 자료를 모으고 있던 시기는 도쿠지로⁸⁾가 살아있던 1899(明治32, 오가이 38세)년 도쿄에서 고쿠라(小倉)로 좌천되었던 시절이다.⁹⁾ 작품 「산쇼대부」의 구상은 적어도 도쿄로 돌아오는 1902(明治35)년 이전이 될 것이다. 「산쇼대부」를 『中央公論』에 발표한 것이 1915(大正4)년 1월이므로 작품 구상에서 발표까지는 십 수년이 걸린 셈이다.

이 십 수년의 기간은 오가이에 있어 공사 다망한 시간이었다. 그는 러일전쟁 종군, 시 발표회(常磐會) 활동, 그리고 그로 인해 당시 권력의 핵심인 공작(公爵) 야마가타(山県有朋)¹⁰⁾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군의 총감으로 지위가 안정되면서 활발한 문학활동¹¹⁾등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대역사건 등을 거쳐 다이쇼 시대를 맞이해 역사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오가이는 1912(大正1)년 9월 13일, 메이지 왕의 죽음을 따라 노기 육군대장 부부의 순사 소식을 접하면서, 일본 전통의 순사를 주제로 한 역사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는 역사소설의 집필에 있어 역사적 사료에 충실하면서 「아베일족」, 「사카이 사건」 등과 같이 무사들이 죽음과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장면들을 묘사했다.

이러한 작품들은 오가이 스스로 「역사의 자연스러움을 변경하기가 싫어서 역사에 속박되었다」고 했듯이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작품들이다. 그러나 「산쇼대부」의 경우는 역사의 속박이 괴로워서 「역사에서 벗어나려고」 새로운 시도를 모색한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다. 「산쇼대부」는 이전의 전통 무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달리해서 꿈과 같이 생각되어 온 헤이안(平安) 시대를 배경으로 산쇼대부 전설을 토대로 한 작품이다.

오가이는 「아베일족」, 「사카이 사건」 등의 집필에 있어서는 자료에 얽메인 탓에 자유로운 창작의 어려움을 밝히고, 「산쇼대부」는 역사적 사건이 아닌 전설이므로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써보고 싶다는 내

7) 森鷗外(1915) 「心の花」第19卷 第1号, 이후 鷗外全集 26卷, 岩波書店, 1973, pp509-510에 수록. 이후 번역은 필자의 번역으로 하였음.

8) 도쿠지로(三木竹二)는 오가이가 육군 군의총감이 된 이듬해인 1908(明治41)년 43세로 사망했다.

9) 오가이가 고쿠라(小倉)에 근무했던 기간은 1899(明治32, 오가이 38세)년 그가 육군 군의감에 임명되어 고쿠라(小倉) 제 12사단 군의부장으로 부임하고 부터 1902(明治35, 오가이 41세)년에 육군 제 1사단 군의부장에 임명되어 도쿄로 부임할 때 까지이다. 대학 동기생인 고이케(小池正直)가 육군 군의총감이 되어 오가이를 지방인 고쿠라(小倉)로 발령을 내었기 때문에 당시 오가이는 실망하여 좌천으로 생각했다.

10) 러일전쟁에 참모총장으로 종군했으며 수상을 거치면서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

11) 1909(明治42)년 자연주의를 모방한 「半日」, 「キタ・セクスアリス」, 1910(明治43)년에는 「青年」, 대역사건에 의한 「沈黙の塔」을, 1911(明治44)년에는 「妄想」을 발표하는 등 오가이는 의욕적으로 창작을 발표했다.

면을 표출하고 있다.

오가이는 다양한 판본의 산쇼대부 전설을 점검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얽매이지 않고 속박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상상력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오가이의 상상력에 의해 역사에 근거한 낭만적인 전설이 근대 문학작품으로 재생산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오가이의 노력이 「산쇼대부」 집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가이는 「산쇼대부」에서 왜 이전의 역사소설의 집필과 다른 양상의, 역사의 상상의 자유를 그토록 추구해야만 하였을까? 그리고 작품 구상에서 발표까지 십 수년이 걸려야만 되었을까? 그것은 오가이의 정신에 내재되어 있던 불교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오가이의 사상과 불교

오가이의 정신적 교양과 사상을 찾는다면 그가 어린시절 몸에 익혔던 전통적 무사집안의 가풍과 유교 사상 그리고 독일 유학시절에 익힌 서구의 학문과 철학사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그의 유교적 교양의 배경을 살펴 보자.

오가이가 태어난 1862(文久2)년은 에도(江戸) 시대 말기이다. 당시 일본은 서구 문명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1858(安政5)년 미·일 수호통상조약이 맺어졌고, 국내에서는 양이(洋夷)운동이 일어나는 등 대내외적으로 사회가 급변하는 시기였다.

오가이는 대대로 카메번(亀藩)의 전의(典医)를 가업으로 한 무사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시대의 전환기에서 어머니 미네(峰子)의 기대와 엄격한 훈도에 의해 번교(藩校)인 요로칸(養老館)에서 배운 것은 동양의 유학(儒学)이었다.

오가이가 어린 시절 고향인 쓰와노(津和野)에서 익힌 공부는 다음과 같다.

1867(慶応3)년 6세, 11월 15일 村田久兵衛에게 논어를 배우다.

1868(明治1)년 7세, 3월 米原佐에게 맹자를 배우다.

1869(明治2)년 8세, 요로칸에 사서(四書)를 읽으러 가다. 27일이 되어 四書正文을 받았다.

1870(明治3)년 9세, 11월 아버지에게 네델란드 글을 배우다. 요로칸에 5경(五經)을 읽으러 다니다. 사서집주(四書集註)를 받았다.¹²⁾

오가이의 학습은 유학을 바탕으로 한 한학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당시 유학이라면 경(敬) 사상을 중심으로 한 도덕과 인격을 수행하는 주자학(朱子學)과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중시하는 양명학(陽明學)이었다. 그의 어린 시절의 독서의 영향은 그의 나이 38세(1899:明治32)때 고쿠라(小倉)에 근무했던 시절, 양명학의 어록집인 『전습록(伝習録)』¹³⁾을 접하게 되고 이후, 양명학자를 소재로 한 역사소설 「오시오헤하치로(大塩平八郎)」의 발표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의 전통 무사집안에서의 「경(敬)」을 바탕으로 한 유학 공부는 「절대복종」으로 까지 어머니를 공경하였고, 그러한 어머니의 기대에 의해 육군 군의 총감, 육군성 의무국장의 지위로 까지 「입신출세(立身出世)」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¹⁴⁾

오가이의 쓰와노 요로칸에서의 학습은 그의 국가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야마자키(山崎国紀)씨는 요로칸의 학칙이 다른 번교에서의 학습과는 다르게 당시의 국학자 오쿠니(大國隆正)의 국학정신이 반영되어 오가이의 사상을 국풍적으로 키웠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상이 독일 유학당시 나우만 교수와의 논쟁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

그리고 오가이는 아버지에 의해 일찍 네델란드어에 접했다. 당시 양학(洋學)이라고 하는 서구 문명은 네델란드 상선들에 의해 나가사키 데지마(長崎出島)를 통해 들어왔고, 특히 서구의 의료기술을 배우려는 의학자들은 네델란드어를 필요로 하였다. 오가이와 동향인 니시 아마네(西周)¹⁶⁾는 같은 전의(典醫) 집안으로 일찌기 네델란드에 유학하여 메이지 정부의 육군 창설에 기여하며 계몽사상가로서 활약하였다. 후에 오가이가 독일에서 귀국했을 때 당시 문벌인 남작 해군중장 아카마쓰(赤松則良)의 장녀 토시코(登志子)와의 혼인을 주선하였다.

오가이가 일찍이 네델란드어를 접하게 되었던 것도 이러한 의료를 가업으로 내려왔던 집안의 내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오가이의 서구 합리주의 사상의 배양을 살펴 보자.

오가이가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육군 군의로 봉직하면서 독일 유

12) 森鷗外(1908) 「自己材料」, 『鷗外全集35』, 岩波書店, 1975. 1. p11

13) 『伝習録』은 明나라 王陽明의 어록으로 양명학의 강론을 그의 문인들이 편찬하였다.

14) 拙稿(1997) 「森鷗外の『舞姫』考察」, 『日本文化学報』第 3輯, 韓国日本文化学会, p272

15) 山崎国紀(1989) 『森鷗外-基層的論究』, 八木書店, p3-4

16) 西周(1819-1897)는 儒學과 네델란드어, 영어를 수학하고 네델란드에 유학, 서양의 법률, 경제학을 수학하고 귀국하여 육군에 출사, 번역, 明六社 설립에 참가하는 등 계몽사상가로서 일본 근대 철학계의 기초를 닦았다.

학을 떠난 것은 1884(明治17)년 그의 나이 23세 때이다. 그리고 그는 라이프치히, 뮌헨, 베를린 등의 독일의 각 도시를 섭렵하면서 유학 목적인 육군 위생제도의 연구 뿐 만아니라, 서구의 문화, 철학, 문학 등을 탐구하였다. 귀국 후 그의 공사에 걸친 활약은 이러한 서구 합리적인 사상을 배제하고서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오가이는 귀국 후, 독일 유학 체험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첫 작품 「무희(舞姫)」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3년은 꿈과 같이 지나가 버렸지만 때가 되면 숨겨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지닌 본성일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남들이 신동이라고 칭찬하는 것이 기뻐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장이 좋은 일꾼을 얻었다고 격려해 주는 것이 기뻐서 쉴 사이 없이 일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자신이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인물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내 나이 25세, 오랫동안 이 자유로운 대학의 분위기에 젖었기 때문일까? 마음이 어쩐지 편치않다. 자신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었던 진정한 자아가 점차 표면에 나타나서 어제까지의 나 아닌 나를 책망하는 형편이 되었다.¹⁷⁾

독일에 유학하여 가문의 중흥을 위해 「입신출세」를 꿈꾸는 주인공 오타(太田太郎)가 서구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동양의 유교적인 가풍에서 자라난 지금까지의 자신과는 다른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가는 장면이다.

오가이는 독일 유학 당시 관명인 「육군 위생제도 연구」뿐 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인 육군 군의로 독일의 각 도시를 섭렵하면서 독서를 통해 역사와 철학, 문학, 미학에 이르기 까지 서구의 학문에 심취하였다.

오가이는 1891(明治24)년 4월 『위생요병지(衛生療病志)』에 게재된 「대학의 자유를 논함(大學の自由を論ず)」¹⁸⁾에서 독일에 있어 대학의 자치이념이 학문발전의 기반이 되었다고 독일 대학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오타가 경험한 학문, 사상, 예술, 혹은 대학의 자유는 작가 오가이의 체험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가 독일 유학에서 익힌 것은 서구의 자연과학 정신에 기반을 둔 근대 합리주의 사상이었다.¹⁹⁾

17) 森鷗外(1890) 「舞姫」, 『國民之友』第 6卷 69号 附録, 이후 『森鷗外全集1』, 筑摩書房, 1983, p5에 수록.

18) 森鷗外(1891) 「大學の自由を論ず」, 『衛生療病志』第 21号, 이후 『鷗外全集22』, 岩波書店, 1973, p19에 수록.

19) 拙稿(1997) 「森鷗外の『舞姫』考察」, 前掲書(14),

오가이는 귀국 후 전투적 계몽이라고 할 정도로 의료분야에서는 『위생신지(衛生新誌)』, 『의사신론(医事新論)』을 창간하면서 근대 자연과학에 입각한 실험의학을 확립하려고 하였고, 문학분야에서는 『시가라미소시(しがらみ草紙)』 창간, 번역시집 『오모카게(於母影)』 발표, 일찌이 사토(佐藤春夫)씨에 의해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²⁰⁾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독일 체험을 소재로 한 「무희(舞姫)」 발표 등 서구의 방법론으로 문학을 선보였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오가이의 사상은 유교를 기반으로 한 한학과 쓰와노 번교에서 함양된 국학, 그리고 독일 유학에서 자각한 근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근대사상은 일생을 통하여 국가 관료라는 신분에 처해 있으므로해서 발생하는 모순을 문학을 통해 고민하고 표현하였다.

다음에는 오가이와 불교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오가이의 사상을 논할 때 불교에 관한 문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세가와(長谷川泉)씨는 1911(明治44)년 도쿄경제신문에 게재한 오가이의 「테켄선생(鼎軒先生)」을 소개하면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서양문화의 눈으로 동양문화를 관찰해야 한다는 오가이의 정신구조를 논하였다.²¹⁾ 여기에서 동양문화는 유교를 말하는 것이었다. 시게마쓰(重松泰雄)씨의 「오가이와 동양사상(鷗外と東洋思想)」²²⁾에도 주로 주자학과 양명학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오가이의 역사소설 「아베 일족」, 「사카이 사건」 등에 보이는 불교적인 묘사와 「산쇼대부」에 보이는 지장보살의 영험과 안주의 자기희생 등의 묘사, 그리고 「산쇼대부」 이후에 발표된 「한산 습득(寒山拾得)」 등의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오가이의 「한산 습득」은 중국 당나라 시대 한산과 습득이라는 기괴한 선승의 내용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한산과 습득이 실제의 인물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들은 천태산(天台山) 국청사(国淸寺)에 거주하다가 그곳의 지방장관이 찾아와서 예를 들이려하자 크게 웃으면서 절을 떠났다. 그중에 한산은 바위틈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이다. 세속을 초탈한 모습의 한산, 습득은 문수, 보현보살의 화신이었다는 이야기로 한국에서는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선(禪)을 수

20) 佐藤春夫(1949) 「森鷗外のロマンチズム - 『近代日本文学の展望』のうち-」, 『群像』

21) 長谷川泉(1976) 「日本近代化と森鷗外」, 『本の本』12,, ボナンザ, p14

22) 重松泰雄(1989) 「鷗外と東洋思想」, 『別冊国文学 森鷗外必携』, 学灯社, p141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끔 화제로 되고 있으며, 절에 따라서는 한산의 시가 곁들여져 있는 한산과 습득의 그림이 걸려 있는 곳도 있다.

오가이의 불교와의 만남은 제 12사단 군의부장에 임명되어 부임한 이듬해 1900(明治33)년 그의 나이 39세에 안국사(安国寺) 승려인 타마미즈(玉水俊琥)를 만나고 부터라고 추측된다. 조동종 승려인 타마미즈는 독일 문학으로 알게 된 후쿠마(福間博)와 같이 오가이가 고쿠라에서 만난 친구이다. 두 사람은 오가이가 도쿄에 돌아올 때 도쿄의 오가이의 집 근처로 옮겨 교제를 계속했다.

오가이의 고쿠라 부임 시절은 도쿄에 있을 때와 달리 문학을 토론 할 만한 친구도 없었다. 그리고 고쿠라에의 부임은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던 동기생 고이케가 육군 군의 총감에 임명되면서 발령받은 곳이기 때문에 오가이는 좌천이라고 생각하고 실의에 빠진 상태였다.²³⁾

그런 상태에서 1월 28일 이혼한 첫 번째 아내 토시코가 결핵으로 사망한다. 토시코와의 이혼은 토시코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이혼의 원인은 독일에서 귀국 당시의 「엘리제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집안의 권유로 결혼을 서두른 탓으로 오히려 그 책임은 오가이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²⁴⁾ 토시코의 죽음은 오가이에 있어, 기개가 넘치던 20대 청년시절과는 달리 현재의 자신의 처지와 맞물려 감회가 새로웠을 것이다. 승려 타마미즈와의 교제는 이러한 심리상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오가이가 본격적으로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은 1900년 11월부터 라고 생각된다. 같은 해 11월 1일 오랜 친구인 카고(賀古鶴所)에게 보낸 오가이의 편지를 보면 「동료들을 위해 심리학 강의를 하고 조동종의 승려는 벽암집을 강의하기로 했다」²⁵⁾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12월 4일자 그의 일기를 보면 「타마미즈가 오가이를 위해 유식론을 강의하기로 했다」²⁶⁾고 나와 있다. 오가이는 이때부터 타마미즈로부터 불교의 벽암집(碧巖集)과 유식론(唯識論)을 배운 듯 하다. 벽암집과 유식론은 어떠한 것인가? 불교를 오랫동안 접해 본 사람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고차원적인 불교 이론이다.

타마미즈가 속해 있는 조동종은 원래 중국의 달마대사로 부터 시작하여

23) 도쿄대학 의학부 졸업성적이 오가이가 8등, 고이케가 9등이었다. 그리고 오가이는 관명으로 독일 유학에 선발되었다.

24) 拙稿(1997) 「森鷗外の『舞姫』考察」, 前掲書(14) 참고.

25) 森鷗外の 1900(明治33)년 「서간」, 『鷗外全集26』, 岩波書店, 1975, p83

26) 森鷗外の 1900(明治33)년 「小倉日記」, 『鷗外全集35』, 岩波書店, 1975, p285

6조 혜능대사로 이어져서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仏)」을 중요시하는 전통 선(禪)종이다. 일본에서는 카마쿠라(鎌倉)시대 초기 1227년 송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온 선승(禪僧) 도겐(道元)을 종조(宗祖)로 하고 화두(話頭)를 드는 간화선(看話禪)을 중요시 하는 임제종(臨濟宗)과 같이 명상적인 묵조선(默照禪)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려는 종파이다.

벽암집은 깨달음에 이르는 화두를 집대성한 선종의 대표적인 서적이다. 그리고 유식론은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대승불교의 가르침으로 모든 것을 마음의 작용으로 본다. 눈과 귀, 코, 입, 감각으로 나타나는 모든 외계의 대상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닌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마음의 작용으로 무의식인 아뢰야식을 포함해 일체를 공(空)으로 보고 깨달음에 이르러 하는, 일본에서는 법상종(法相宗)에서 근본 가르침으로 하고 있다.²⁷⁾

이와같은 선종의 가르침은 종교라기 보다는 철학이며, 맹목적으로 기도하여 복을 비는 기복신앙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오늘날 불교신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기복신앙에 치우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르침은 상당한 지식과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앗될 것이다. 여기에 서구의 무의식 철학인 하르트만(Hartmann) 철학²⁸⁾에 심취한 적이 있는 오가이에 있어서 유식론은 새로운 철학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선종은 무로마치(室町)시대부터 무사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받아들여 졌다. 죽음과 항상 맞닥드리고 있었던 무사들은 현실세계를 무상하게 보았고 현실세계를 초월하는 가치를 선종에서 찾으려고 하였다.²⁹⁾ 이러한 일본의 선종은 일본의 무사도에 영향을 주었고 막부시대가 끝나는 에도시대 말까지 그 전통이 내려왔다고 볼 수 있다.

오가이는 전통 무사집안에서 성장한 지식인으로 그의 정신세계는 전통 무사정신이 내재하고 있었다고 할 때 불교 선종의 가르침은 이미 오가이의 정신세계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오가이의 소설 「아베 일족」의 주군 타다토시가 순사를 원하는 가신들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멸한다」³⁰⁾는 표현은 오가이의 불교관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7) 松涛弘道(2007) 『仏教の常識がわかる小事典』, php新書, 참조

28) Hartmann은 독일의 철학자로 헤겔과 쇼펜하워의 철학을 종합 정리하여 근대과학의 실재론에 입각해서 무의식철학을 수립했다. 오가이는 독일 유학시절 하르트만 철학에 접했다.

29) 구태훈(2005) 『일본무사도』, 태학사, p72

30) 森鷗外(1913) 「安部一族」, 『中央公論』 이후, 『森鷗外全集3』, 筑摩書房, 1983, p117

4. 「산쇼대부」와 불교

「산쇼대부」의 내용을 살펴 보자.

아버지는 쓰쿠시(筑紫)의 안락사(安樂寺)에 부임한 이후, 소식이 끊어졌다. 안쥬(安壽)와 즈시오(厨子王)는 아버지를 찾아서 하녀 우바다케(姥竹)를 동반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어머니를 따라 에치고(越後) 지방을 지나고 있었다. 누나인 안쥬가 14살, 동생인 즈시오가 12살로 유복자로 성장했지만, 지체있는 집안의 자녀이다.

가을 날은 일찍 저물어 머무를 곳을 찾던 중,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그 지방 수령의 방책으로 인해 노숙을 해야 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던 중 그러한 정황을 노린 야마오카대부(山岡大夫)에게 유괴되어 어머니는 사도(佐渡)의 농가에, 두 남매는 단고(丹後)의 산쇼대부에게 팔려가 노비가 된다. 가혹한 노비생활에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누나 안쥬는 지니고 있던 수호불(守護仏)인 지장(地藏)보살상을 동생 즈시오에게 주며, 지장보살의 영험으로 즈시오가 탈출하기를 기원하고 자신은 죽음을 택한다.

탈출한 즈시오는 뒤쫓는 산쇼대부의 아들 사부로(三郎)를 피해 고쿠분사(国分寺) 본당에 숨어들어가 주지인 돗미율사(曇猛律師)에 의해 구출되어 서울(京都)로 오게 된다. 즈시오는 수호본존 지장보살상으로 인해, 기요미즈사(清水寺)에서 왕후인 양녀의 병을 고치고자 와 있던 최고 권력자 관백(関白), 모로자네(師実)의 도움으로 신분이 회복되고 아버지가 죽은 사실도 알게 된다.

즈시오는 관백에 의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고 마사미치(正道)라는 이름으로 단고 지방의 수령이 되어, 단고 지방의 인신매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산쇼대부의 노비를 해방한다. 산쇼대부 일가는 노비를 부리는 대신에 일하는 자에게 급료를 지불하게 하니 그 덕으로 한층 번영하게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팔려간 사도에 가서 어머니를 찾고 누나 안쥬의 영혼도 위로한다.

이상이 작품 「산쇼대부」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작품 「산쇼대부」에서 수호본존 지장보살은 이야기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해결점이 되고 있다. 그러면 수호본존 31)의 등장과 역할을 살펴보자.

수호본존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즈시오 가족이 인신매매단에 팔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안쥬가 어머니에게 수호본존의 간수를 부탁받는 곳에서 이다.

31) 수호 본존불은 헤이안(平安)시대 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불로서 신앙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지장보살은 석가모니 이후 미래불(未來仏)인 미륵보살이 탄생할 때 까지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보살로 특히 관세음보살과 함께 일본에서는 널리 민중들에게 친밀감을 주는 불보살(仏菩薩)이다.

수호본존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의 설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즈시오와 안쥬가 산쇼대부에게 팔려가서 고통받을 때 구원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등장한다. 다음은 두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꾸면서 수호본존의 영험을 체험하는 장면이다.

두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꿈 이야기를 했다. 같은 꿈을 같은 시간에 꾸는 것이었다. 안쥬는 수호본존을 꺼내어 꿈에서 처럼 머리맡에 두었다. 그리고 둘이는 예배를 올리고 희미한 불빛에 지장보살의 이마를 비추어 보았다. 보살의 미간 사이에는 끌로 파놓은 듯한 십자모양의 상처가 선명하게 보였다.³²⁾

즈시오와 안쥬는 산쇼대부로 부터 도망치려는 말이 발각이 되어 이마에 불로 각인이 찍혀지는 괴로움을 당했는데 수호본존의 영험으로 낫는 꿈을 꾸다. 그리고 두 사람은 수호본존이 자신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통을 대신받았다는 영험을 체험한다. 안쥬의 자기희생은 이러한 수호본존에의 믿음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즈시오를 구하는 길은 수호본존과 같은 자기희생의 실천이다. 안쥬는 스스로 수호본존의 마음이 되어 즈시오를 탈출시키기에 이른다.

세 번째는 즈시오가 안쥬의 희생에 의해 탈출했을 때, 즈시오의 입신출세를 위해 등장한다. 여기에서 수호본존의 영험은 절정에 이른다. 그 결과 입신출세를 한 즈시오에 의해 산쇼대부의 노비들이 모두 해방되고, 안쥬를 위한 절이 세워지고, 드디어 즈시오는 어머니를 찾는다.

산쇼대부 전설은 불교의 수호본존(守護本尊) 지장보살영험설화(靈驗說話)라고 볼 수 있다. 오가이의 소설 「산쇼대부」는 이러한 산쇼대부 전설의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설에서는 출세한 즈시오가 산쇼대부 일족을 가혹하게 벌주는 것에 비해서 소설 「산쇼대부」의 설정은 노비를 해방시켜 주는 댓가로 산쇼대부 일족에게 부를 누리게 하고 있다. 안쥬의 원수를 갚음으로서 독자에게 주어지는 카타르시스보다는 불교의 절대적 가치인 자비(慈悲)를 배품으로서 독자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소설의 종반에서 어머니의 애달고 간절한 소원이 즈시오에 의해 눈이 떠지는 장면은 그의 절제력 있는 문장력으로 더욱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오가이는 「산쇼대부」의 발표에 이어 1년 후 1916(大正5)년 1월 불교적인 작품 「한산 습득」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해 4월 그는 55세로 평생을 몸 담았던 군직에서 퇴직을 한다. 「한산 습득」은 오가이가 퇴직하기 직전에 발표한 작품으로 오가이는 이미 퇴직이 결정된 시기이다. 오가이가 말년에 이와같은

32) 森鷗外(1915) 「山椒大夫」, 『中央公論』, 이후 『森鷗外全集3』, 前掲書(4), p245.

불교적 색채가 짙은 작품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불교 사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쇼대부」, 「한산 습득」은 만년의 오가이의 불교적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즈시오의 인신매매의 금지, 안쥬의 자기희생 정신은 지금까지 오가이의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불교의 자비의 표현이다.

오가이의 작품 「산쇼대부」는 야마자키(山崎国紀)씨가 논하는 이상적인 위정자상³³⁾뿐 만아니라, 불교설화인 산쇼대부를 소재로 하여 수호본존 지장보살의 영험담과 자비를 주제로 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 모든 외형적인 것을 사양하고 모리 린타로로서 죽으려 한다」³⁴⁾고 한 오가이의 유언을 보면 유교적인 명리보다는 불교적인 무상(無常)감을 더욱 느끼게 하고 있다.

5. 맺음말

오가이는 명치유신으로 막부체제가 무너진 후 모리가(森家)의 장남으로 태어나 가문의 중흥에 대한 부담과 독일유학을 통해 엘리제와의 사랑의 좌절을 경험하였다. 그는 고쿠라(小倉)에 좌천되는 경험도 하면서 육군 군의총감이라는 권력의 핵심에 까지 올랐다.

초기 작품 「무회」를 발표한 이후, 역사소설 「아베일족」, 「사카이 사건」 등에 이르기 까지 오가이의 문학은 구속된 군인으로서의 현실의 모순에 대한 내면의 표출이었다. 오가이의 이러한 작품들은 「권력」, 「국가」를 주제로 한 테마소설로 그의 국가의식을 엿볼 수 있다.

「산쇼대부」는 1914(大正3)년 12월 탈고되어, 그 이듬해 1월 『中央公論』에 발표되었다. 그의 나이 19세 이후 오랫동안 몸 담았던 국가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기 1년전에 발표된 만년의 작품이다.

「산쇼대부」는 오가이의 역사소설에서 집필자세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젊은 시절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진실한 사랑인 엘리제를 돌려보낸 경험이 있는 그로서는 자신은 입신출세를 위해 살아왔는가라는 내면의 모순에 현실적으로 공허를 경험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자신의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지는 않았을까? 생애에 걸쳐 유교사상과 서구의 근대사상 등 다양하게 섭렵했던 그의 사상은 불교를 통해 만년의 공허를 극복하려고 하

33) 山崎国紀(2007) 『森鷗外』, 大修館書店, p643.

34) 森鷗外(1922) 山崎国紀(2007), 『森鷗外』, 前掲書(33), p816에 의함

지 않았을까?

「산쇼대부」의 집필자세에 보이는 속박에서의 탈출, 이상적인 위정자상의 표현, 그리고 불교적인 주제는 이러한 오가이가 처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산쇼대부」는 오가이의 이러한 심정을 대변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参考文献】

- 權泰敏(1997) 「森鷗外の 『舞姫』 考察」, 『日本文化學報』第 3輯, 韓國日本文化學會, p275
- 權泰敏(2001) 「森鷗外の 『安部一族』 論」, 『日本文化學報』第 10輯, 韓國日本文化學會, p287
- 權泰敏(2006)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歷史小說 考察」, 『日本文化學報』第 31輯, 韓國日本文化學會, p327
- 구태훈(2005) 『일본무사도』, 태학사, p72
- 森鷗外(1900) 『鷗外全集26』, 岩波書店, 1975, p83
- 森鷗外(1900) 『鷗外全集35』, 岩波書店, 1975, p285
- 森鷗外(1900) 『森鷗外全集3』, 筑摩書房, 1983, p253
- 畑有三(1972) 「森鷗外 『山椒大夫』 を視座として」,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 学灯社, p159
- 奥野政元(1972) 「森鷗外 『山椒大夫』 の世界」, 『日本文芸研究』第24卷, 関西大学日本文學會, p26
- 長谷川泉(1976) 「日本近代化と森鷗外」, 『本の本』12, ボナンザ, p14
- 小堀桂一郎(1982) 『森鷗外-文業解題(創作篇)』, 岩波書店
- 大島保彦·岸田俊子·高田ゆみ子(1983) 「森鷗外 『山椒大夫』 論」, 『比較文学研究』44号, 東京大学
- 増山初子(1987) 「森鷗外 『山椒大夫』 の世界」, 『人文論究』第36卷, 関西学院大学, p40
- 山崎国紀(1989) 『森鷗外-基層的論究』, 八木書店, p3-4
- 重松泰雄(1989) 「鷗外と東洋思想」, 『別冊国文学 森鷗外必携』, 学灯社, p141
- 松涛弘道(2007) 『仏教の常識がわかる小事典』, php新書
- 山崎国紀(2007) 『森鷗外』, 大修館書店, p643

要 旨

森鷗外は乃木大将の殉死以後歴史小説を書き始めたが、「安部一族」「堺事件」等は歴史的史料に充実した作品であった。しかし「山椒大夫」は「歴史離れ」の作品である。森鷗外の思想は津和野藩学から養われた儒学と国学であった。また森鷗外はドイツに留学し、自然科学に基礎した哲学なども勉強して西欧合理主義精神に目覚めた。そして小倉時代に碧巖録、唯識論も教われ、伝統的武家の精神に含まれていた禅思想とともに仏教にもかかわる。山椒大夫伝説は仏教に深く関係がある。また小説「山椒大夫」も仏教精神の慈悲が表現されている。退官を向かう森鷗外の精神構造は空虚であった。「山椒大夫」の執筆は当時の森鷗外の仏教的精神構造にかかわると思うのである。

キーワード：歴史小説, 伝説, 山椒大夫, 唯識論, 慈悲, 仏教, 精神構造

투 고 : 2009. 11. 30

1차 심사 : 2009. 12. 12

2차 심사 : 2010. 01. 09